



'자연 앞에서 한없이 나를 낮춘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2차 월정사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여름수련회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을 성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여름수련법회에서 80여 불자들이 삼보일배 정진하고 있다.

### 스리랑카 영화축제 대구 시작으로 전국 순회

'가마니아 스님 일대기' 대구 달성군청서 첫 상영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영화축제가 8월 5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순회 개최된다. 국제 불교 교류단체 '함께하는 세상' (이사장 지성)은 8월 5일 대구시 달성군청 공연장에서 스리랑카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마한다 가마니아' 스님 일대기 영화를 상영했다. '마한다 가마니아' 일대기영화는 8월 23일까지 대

구를 시작으로 거제와 안산, 울산,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순회 상영될 예정이다. 대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세상'은 이번 행사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광성사서 티베트불교문화 여름캠프 열려

한국티베트센터 광성사(주지 소남)는 8월 17~19일 제5회 티베트불교문화캠프를 개최한다. '티베트 반야심경'을 주제로 열리는 티베트 불교 문화캠프는 주지 소남 스님이 직접 티베트의 경전공부 방법을 소개하고 반야심경 풀이 등을 전한다. 티베트불교문화캠프에서는 오체투지, 공양수 올리기, 마니차 돌리기, 만다라 공양 등 티베트 불교의식이 진행되며 행사 마무리에는 대승포살과 수계의식도 진행된다. 참가비 5만원, 선착순 21명. (051)243-2468 이재진 부산지사장

## 어르신 여름나기 복지관이 돕는다

#### 부산지역 불교계 복지관 말복맞아 삼계탕 공양

부산지역 불교계 복지관들이 말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보시행을 펼쳤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8월 7일 결식어르신·홀어르신 500명을 모시고 8월 7일 말복을 맞이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효도삼계탕'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용교 국회의원,이종철 남구청장 및 부산시의원 등 정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무료배식 등 노력봉사에 나섰다. 이날 이춘성 용호복지관 관장은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날씨가 무더워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

된다"며 "여름 중 가장 덥다는 말복을 맞이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호동에서 온 이춘자 할머니(72)는 "날씨도 더운데 복지관에서 삼계탕을 대접해 줘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범어사 주지)는 말복 전날인 8월 6일 금정구 해인유통에서 김영옥 해인유통 대표와 영주암 주지 범산 스님을 모시고 말복 닭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각 복지관들이 삼계탕 보시행사를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수영구 노인복지관, 양정재가노인센터, 화명종합사회복지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금정종합사회복지관, 흥법사 무료급식소, 해일암 무료급식소, 선양시니어빌리지 등에 각각 100마리씩 총 1100마리 닭이 나누졌다. 김영옥 해인유통 대표는 "말복을 맞아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불교계 복지시설에 닭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범산 스님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받는 이에게 많이 전해주길 바란다"며 "항상 어려운사람을 돕는 보시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학교 폭력 아픔, 사찰서 치유한다

#### 부산 동림사, 스님과 선생님, 학생 함께 어우러지는 교화프로그램

부산 가장 동림사(주지 성타)는 7월 27일 동림사에서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폭력교화활동으로 동림사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체험에서는 부산 금양중 선생님 4명과 25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동림사에서 스님, 선생님들과 팔씨름을 비롯해 어울림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천연염색, 다도체험, 명상, 요가, 그림그리기, 고사성어 및 소설로 접근한 인성수업, 떡매치기, 부채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선생님은 "교실에서 폭력을 휘둘러 교화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이 처음에 5분도 집중 못했는데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집중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모두 함께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것을 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성타 스님은 "토요스쿨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데 인성교육에



동림사 다도체험 프로그램에서 참가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사찰과 연계한 체험활동이 더욱 넓어지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계곡 전체에 철제계단을 설치해 아름다운 경관을 심하게 훼손한 사례다. 전라북도 ㅎ사찰 올리는 길

### 사찰주변의 산길을 보존하자

어릴 적 어머니 손잡고 절에 가면서 걸었던 산길에 대한 추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른 새벽 산길에는 방금 잠에서 깨어난 산새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소리, 물소리가 정겨웠다. 인적 없는 조붓한 길가에는 참나리꽃, 도라지꽃 같은 여름 꽃이 피어나고 나무에도 향내 그윽한 꽃들이 만발하여 우리를 반겨주었다. 오래 걸어서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산길은 비록 투박하기는 해도 나름대로 멋이 있었다. 돌이 튀어 나오고 나무뿌리가 드러나 걷기에는 불편했지만 발바닥으로 느끼는 감촉만큼은 그럴 수 없이 좋았다. 요즘은 깊은 산에 자리 잡은 절 주변에서도 예전에 걸었던 멋스러운 산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넓히고 포장한 진입로는 예외로 치더라도 조금만 경사가 급하고 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곳에는 길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맛을 잃고 말았다. 자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재데크를 이용해서 길이나 계단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기 흉한 철제 계단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송두리째 파괴하기도 한다.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편리함을 위해 목재데크나 철제구조물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 일수도 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곳에 만 그러한 구조물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길을

몽땅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경관적으로는 물론 생태적으로도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롭지 못 할뿐만 아니라 자연과 괴의 주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재데크나 철제계단을 설치하면서 하부를 튼튼히 고정시키기 위해 기존의 암반이나 자연식생을 파괴하는 것은 향후 구조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자연의 원형을 회복하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 올레길이다 돌레길이다 하여 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 어떤 길보다도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사찰에 올라가는 산길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그 산길은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경관적으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리함을 추구하여 이러한 산길을 인공적으로 다듬는다면 그러한 건강함과 아름다움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말 것이다. 자연은 우리시대를 사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재이다. 절 주변의 산길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불자들의 몫이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산길보존운동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